

광주·전남에 쏟아진 장맛비... 정전·침수 등 잇따라

도로·농경지 침수에 구조 출동 산사태주의보 주민 79명 대피 전신주 손상에 916가구 정전 항공·해상 운항 등 피해 발생

광주·전남 지역에 내린 최대 155mm의 집중호우로 정전과 침수, 교통사고, 항공·해상 운항 지연 등 다양한 피해가 발생했다. 산사태 우려로 주민 대피도 잇따랐다.

22일 광주기상청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이날 오전 8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전남 곡성이 155mm로 가장 많았고, 영광 안마도 153.6mm, 구례 성삼재 151mm, 광주 137.6mm, 담양 봉산 137.5mm, 나주 135.5mm, 함평 130mm, 목포 72.7mm 순이었다. 시간당 최대 강수량도 담양 47.5mm, 구례 42.5mm, 곡성 39.5mm를 기록하는 등 순간적인 폭우가 이어졌다.

이로 인해 광주에선 총 48건의 안전 관련 신고가 접수됐다. 도로 침수, 가로수 전도, 토사 유출, 담장 붕괴 위험 등으로 인해 시민 안전을 위협했으며, 당국은 즉각 현장 조치가 나섰다.

정전 피해도 발생했다.



21일 거센 장맛비가 하루 종일 쏟아진 전남 담양군에서 119 소방대원들이 침수 지역에서 배수 지원을 하고 있다. 담양소방서 제공

지난 21일 낮 12시 1분께 광주 남구 봉선동에서는 강풍에 부러진 나뭇가지가 전신주 전선을 건드리며 아파트 단지 일대 916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겼다. 이로 인해 엘리베이터에 갇힌 시민 4명이 소방에

구조됐으며, 약 1시간 만에 복구가 완료됐다.

전남 지역에선 나무 쓰러짐, 농경지 침수 등 31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특히 무안군 현경면 일대에서는 농지 3

ha가 물에 잠겼으며, 주택 주변의 배수작업 요청도 잇따랐다.

산사태 피해도 우려됐다. 21일에는 광양·담양·곡성·구례·영광·장성 등 6개 시군에 산사태주의보가 발령되며, 담양·곡성·

장성 14개 마을의 주민 79명이 대피소로 긴급 이동했다. 이후 특보 해제와 함께 새벽 무렵 귀가가 이뤄졌다.

교통도 마비됐다. 광주에선 하천 진입로 336곳과 징검다리 57곳, 둔치주차장 11곳 등 총 449개소에서 통행이 통제됐고, 전남에서도 천변도로 8곳과 둔치주차장 21곳, 산책로와 징검다리 등 16곳의 출입이 제한됐다.

무등산과 전남 5개 국립공원은 입산이 금지됐으며, 완도·목포 등 4개 항로 5척의 여객선 운항이 멈췄다.

항공편도 차질을 빚어 광주공항에선 5편이 지연됐고 여수공항은 6편이 취소됐다.

또한 장맛비로 인한 교통사고도 잇따랐다. 이날 오전 8시 45분께 장성군 호남고속도로 전남 방면에서는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가로등을 들이받았고, 오전 11시 10분께 담양군 광주-대구 고속도로에서도 비슷한 단독 사고가 발생해 운전자들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비상 1단계를 발령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 체계를 유지 중이다. 기상청은 당분간 비가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24일 다시 5~3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이정준 기자 jeongjune.lee@jnilbo.com

제석산서 또 추락·모친 살해 지적장애 아들 검거

주말 사건사고

추락·화재·교통사고 발생 모친 살해용의자 검거도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광주·전남 곳곳에서는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발생했다.

새벽에 화재가 발생해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거나 1톤 트럭이 신호수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도 있었다. 여수시에서는 병상에 누운 어머니를 숨지게 한 40대 지적장애 아들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주말간 지역의 사건사고를 정리해본다.

●추락, 화재, 교통사고 이어져

지난 20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한 재가

노인복지시설에서 불이나 건물에 거주하던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25분께 화재가 발생해 건물에 거주하고 있던 17명이 무사히 대피했지만 대부분 연기를 들이마셔 가벼운 증세를 호소했다. 이 가운데 일부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은 복지시설 지하 1층 창고에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날 남부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1톤 트럭 운전자 40대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1시30분께 남구 양촌동 승용교 주변에서 자신의 1톤 화물차를 몰다 신호수 40대 남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심정지상태로 인근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휴대전화를 보면서 운전해 B씨를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음주, 무면허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오후 4시 55분께 남구 진월동 제석산 구름다리에서는 추락사고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는 구름다리 아래 낙석 방지용 철망 안에 쓰러져 있던 40대 남성 C씨를 구조해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겼다. C씨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석산 구름다리는 지난 1999년 도로 개설로 단절된 등산로를 연결하기 위해

설치된 보행 전용 교량으로, 지역 주민들의 주요 산책로로 활용됐으나 올해에만 2건의 추락 사망사고가 발생했으며, 2017년부터 총 7명이 추락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또 신호를 위반한 승용차가 시내버스를 들이받는 사고도 발생했다.

이날 오후 6시50분께 광산구 송정동 영광동 사거리에서 베트남 국적 20대 남성 D씨가 몰던 승용차가 시내버스를 들이받았다.

사고 직후 시내버스 운전기사 70대 E씨와 승용차에 함께 타있던 30대 여성 F씨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버스에는 승객 3명이 타고 있었으나 다행히 별다른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D씨가 신호를 위반해 직진을해 정상 주행 중이던 시내버스를

들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D씨는 음주나 무면허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모친 살해사건 용의자 검거

지난 20일 여수시에서는 병상에 누운 어머니를 숨지게 한 40대 지적장애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G씨는 이날 오전 9시께 여수시 한 주택에서 자신의 어머니 H(80대)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H씨는 과거 허리 수술을 받은 뒤 증세가 호전되지 못해 병상에서 생활하던 침상 환자로 알려졌다.

H씨를 돌보기 위해 집을 방문한 요양보호사가 피를 흘리며 숨진 H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 후 현장에 있던 G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G씨는 심한 지적 장애(1급)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유철·정승우·이정준 기자

광주·전남 내일 다시 비... 흐린날씨 이어져

“차량 운행 시 안전거리 확보”

당분간 광주·전남 지역 흐린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또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22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23일 광주·전남 지역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최저기온은 17~21도, 최고기온은 26~32도로 평년보다 1~2도기량 높겠다.

화요일인 24일은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며 이날 광주·전남 지역에는 5~30mm의 비가 예보됐다. 최저기온은 20~21도, 최고기온은 23~27도로 평년과 비슷하겠다.

수요일인 25일 역시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으며 이날 새벽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보고 있으나 구체적인 강수량은 나오지 않았다.

이날 최저기온은 19~21도, 최고기온은 25~29도가 예보됐다.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럽겠으니, 차량 운행 시 안전거리 확보 및 감속 운행 등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주말 간 광주, 전남 나주·담양·곡성·구례·장성·화순·영암·무안·함평·영광·목포·신안(흑산면 제외)·흑산도·홍도 등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됐으며 22일 오전 0시를 기준으로 전부 해제됐다. 이정준 기자

12·29 제주항공 참사 책임자 15명 추가 입건

국토교통부·한국공항공사 직원 등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경찰이 15명의 책임자들을 추가로 형사 입건했다.

전남경찰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 본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 직원, 방위각 시설 관련 업체 관계자 등 15명을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유족 측이 고소해 피고소인 신분으로 입건된 국토부 장관과 제주항공 대표, 한국공항공사 대표 등 15명을 포함하면 모두 24명(중복인 제외)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들은 관계 업무와 조류 예방 업무, 방위각 시설 건설 관련 업무 등을 맡아 각자의 위치에서 주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정준 기자

특히 콘크리트 구조물 형태의 방위각 시설 단턱을 활주로 끝에 설치한 것은 중대한 위반으로 판단하고 있다.

관계 업무 담당자들은 조류의 움직임과 이동 경로 등을 충분히 관찰하지 않거나 기장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 지침에 따르면 새 떼가 관찰되면 관계자는 그 규모나 이동 방향 등을 최소 15분 이상 기장에게 정보를 제공토록 하고 있다.

조류 퇴치 업무 담당자들이 조류 퇴치를 위한 예방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정황도 포착됐다.

경찰은 과실 책임의 중대성을 따져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 방위각 시설 감정 결과와 엔진 분해 조사 등 결과에 따라 추가 입건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정유철 기자·연합뉴스

광주서 역대 가장 빠른 열대야 발생

광주에서 역대 가장 빠른 열대야가 발생했다.

22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9일 광주·전남 일부 지역에 올해 첫 열대야가 나타났다. 이날 오후 6시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최저기온은 광주 과학기술원 25.6도, 전남 영광군 25.2도, 장성 25.1도, 무안공항 25도 등이었다.

광주의 경우 기상관측을 시작한 1973년 이후 역대 가장 빨리 열대야가 발생했

으며 지난해보다 16일 빨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열대야는 밤사이(오후 6시~익일 오전 9시) 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현상이다.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밤사이 따뜻하고 다습한 남서풍이 계속 유입되면서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정준 기자